여러분 곁에 늘 가까이 있는 은행
동양저축은행 226-0180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제18090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www.kwangju.co.kr 2008년 6월 19일 (음력 5월 16일) 목요일

혁신도시의 중심특권을 누리는 3,813 최대단지!
수완신도시 파오레
분양문의 062)367-3000

라면·화장지·두부 바닥났다

생필품 품귀에 주유소 기름도 동나

물류대란 서민생활 직접 위협 단계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가 계속되면서 물류대란의 여파가 서민생활을 위협하고 있다.

라면·과자·설탕 등 주요 생필품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서 슈퍼마켓이 재고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일부 품목은 품귀현상을 빚고 있다. 두부공장은 주 원료인 콩 등 곡물 배송이 안돼 가동 중단 위기에 처했으며, 주유소도 탱크로리 운행 중단으로 재고 물량이 바닥난 상태다.

광주지역 물류센터와 슈퍼마켓에 따르면 화물연대 파업이 시작된 지난 13일부터 식료품과 생필품을 중심으로 공급이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식료품 도매업을 하는 광주 A물류센터의 경우 라면과 과자 등 일부 품목의 재고가 바닥난 상태다. A물류센터는 18일부터 자체 보유한 2.5t 트럭을 이용, 직접 생산 공장에서 생필품을 운송하는 자구책을 세웠다.

광주시 북구 임동의 P마트는 치약과 화장지, 라면 등 일부 품목이 바닥났으나 운송 중단으로 사흘째 물량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이 마트 주인은 "일부 품목의 경우 이미 동이 났으나 제때 공급이 이뤄지지 않아 가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광주·전남지역 두부 공급도 조만간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광주·전남연식품공업협동조합은 인천항에서 이틀에 한 번꼴로 두부 원료인 수입콩 22t씩을 공급받아 80여개의 광주·전남 두부제조업체에 제공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1~2일안에 파업이 풀리지 않을 경우 두부 생산을 중단해야 할 상황이다"고 말했다.

주유소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광주·전남 주유소는 모두 1천223곳. 대개 10일치 분량의 경유와 휘발유를 비축해 두고 있으나 일부 주유소의 경우 비축 물량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8만8천ℓ의 기름저장 탱크를 보유한 담양군 남면 L주유소의 18일 현재 비축 물량은 3~4일분인 3만ℓ 정도. 탱크로리 운행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문을 닫아야 할 판이다.

서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주부 이모(36·광주시 북구 문흥동)씨는 "생필품 가게에 화장지를 사러 갔는데, 동이 나고 없었다"며 "정부가 하루속히 협상을 마무리해 서민생활에 타격을 주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텅~빈 진열대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엿새째인 18일 광주시 남구 모 마트 식료품 코너를 찾은 주민이 텅 비어있는 설탕 진열대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호남 아우른 '탕평인사' 돼야"

류우익 실장 등 청와대·내각 대폭개편 임박

쇠고기 정국을 풀기 위해 이명박 대통령이 대규모 인적쇄신안 마련에 나선 가운데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이번에 개편되는 내각 및 청와대 진용은 호남 소외의 그늘을 없애고 국민을 아우를 수 있는 탕평인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관련기사 4면〉

특히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번 개각에서도 호남이 소외된다면 이명박 정부가 사실상 정치적으로 호남 고립에 나선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강력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18일 청와대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의 인적쇄신안은 20일을 전후해 윤곽을 드러낼 예정이며 내각은 중폭, 청와대는 대폭으로 이뤄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와 관련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내각 및 청와대 진용 개편에 호남 출신 인사를 중용하는 등 국민을 아우르는 탕평인사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이 대통령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참신한 인적 쇄신'을 천명한데다 한나라당 등 여권에서도 호남 출신 중용을 모토로 하는 탕평인사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쇠고기 파동의 배경에는 이명박 정부의 초대 내각 및 청와대 진용이 특정 지역과 특정 인맥으로 이뤄진데 대한 실망감이 자리잡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개각은 국민 통합형이 유력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이번 개각에서 총리를 포함 2~3명, 청와대 개편에서 1~2명의 호남 출신 인사들이 중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내각에서는 교체가 유력한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제외하면 이만의 환경부 장관이 유일하다. 또 청와대 수석 비서관 가운데서는 호남 출신이 전무한 상태다.

김효석 의원은 "이명박 정권이 이번 개각에서도 호남을 소외한다면 이는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는 행위며 사실상의 호남 고립 구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만약에 호남 배제 인사가 재연된다면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강력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 인사는 류우익 실장을 포함해 대폭 개편키로 입장을 정리했다"며 "검증이 끝나는 대로 가능하다면 20일께 발표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李 대통령 쇠고기 관련

오늘 대국민 담화

이명박 대통령은 '쇠고기 파동'과 관련, 19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다.

〈관련기사 4면〉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18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 내일 대국민담화를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다만 형식은 대국민담화가 아닌 기자회견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앞서 "이 대통령이 미국에서 진행 중인 쇠고기 문제와 관련한 양국 장관급 협상 내용을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우암대학 창학 55년 역사의 자랑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2008 휴양 섬 '베스트 30'

증도 등 전남 15곳 선정

행안부·관광공사

신안 증도 등 15개 섬이 행정안전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공동 주관한 '2008 휴양하기 좋은 섬 베스트 30'에 선정됐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목포시 외달도, 여수시 거문도·사도, 완도군 청산도·보길도·소안도, 진도군 관매도·상하조도, 신안군 증도·임자도·비금도·우이도·흑산도·홍도·가거도 등 전남지역 15개 섬이 '휴양하기 좋은 섬 베스트 30'에 선정, 전국의 절반을 차지했다.

올해 시작된 '휴양하기 좋은 섬' 선정 사업은 3천여개의 섬 중 약 1%에 해당하는 섬 30곳을 매년 엄선해 행안부와 한국관광공사가 다양하고 전략적인 홍보로 섬 여행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행정안전부와 관광공사는 '베스트 30'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과 여행 참여를 높이기 위해 여행 후기와 동영상 공모전을 실시, 당선된 여행객들에게는 관할 자치단체의 특산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추진한다.

다음 달 10일부터 10월31일까지 '베스트 30'을 여행한 사람은 누구나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pas.go.kr)를 통해 응모할 수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화주들 협상 나서라"

화물연대 파업 속 뒷짐 … 파업 장기화 방조

화물연대의 총 파업으로 물류 마비 사태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사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화주(貨主)들이 파업 협상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관련기사 3·7면〉

특히 전국 파업현장에서 화물연대와 사측이 활발하게 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광주·전남지역 주요 화주들이 아예 협상에 응하지 않거나 형식적인 협상으로 일관, 파업 장기화를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화물연대 광주지부와 전남지부에 따르면 이날까지 전국 190여곳 사업장 가운데 34곳 사업장에서 운송료 협상이 타결됐다.

그러나 광주·전남의 경우 삼성광주전자, 대우일렉트로닉스, 광양항컨테이너지회, 여수산단 등 10개 주요 대형 사업장 가운데 현재까지 협상이 타결된 사업장은 금호타이어와 여수산단 운송협의회 등 2곳 뿐이다.

컨네이너 운송량을 기준으로 국내 화주 '빅5'에 꼽히는 삼성전자 광주공장의 경우 파업 6일째를 맞고 있지만 화물연대와 단 한차례 협상도 갖지 않고 있다. 삼성로지텍에 물류를 맡기고 있는 삼성측은 화물연대가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며 대화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등 사태 해결을 외면하고 있다.

메이저 화주인 대우일렉트로닉스도 협상테이블을 외면하고 있어 사태 해결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기아자동차의 물량을 총괄하는 글로비스도 화물연대측과 파업 이후 단 한차례 상견례를 가졌을 뿐 본 협상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

화물연대가 전체적으로 운송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업체만 협상이 타결됐다 하더라도 곧바로 정상 운송에 나설 수 없어 물류 마비 사태는 여전한 상황이다.

/윤영기·안현주 기자 penfoot@